

광명시의회 국제교류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방문결과 보고서



2011

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국제교류 목단강시 인민대표 대회 방문결과 보고서

1] 개 요

- 기 간 : 2011. 9. 27(화)~10. 2(일) 【5박 6일】
 - 인천공항 출발 : 2011. 9. 27(화) 10:00 KE 823
 - 인천공항 도착 : 2011. 10. 2(일) 16:20 KE 824
- 여행국 : 중 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 방문단 : 12명(의원 8명, 공무원 4명)
- 주요 연수내용
 -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회담
 - 조선족 초·중·고등학교 방문
 - 사회복지시설 방문
 -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지 등 견학
 - 백두산 관광
 - 용정·도문시, 두만강 견학
 -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집

② 목단강시 인대 방문자 명단

직	성명 (한문)	연령	영문	성별	비고
의장	이준희 李俊熙	51	LEE JUN HII	남	9월23일 출발
부의장	문현수 文賢洙	43	MOON HYON SOO	남	
의회 운영위원장	고순희 高順姬	39	KO SOON HEE	여	
복지건설 위원장	정용연 鄭龍衍	51	JUNG YONG YEON	남	
의원	권태진 權泰振	50	KWON TAE JIN	남	9월23일 출발
의원	이병주 李炳柱	52	LEE BYUNG JU	남	
의원	서정식 徐丁植	47	SEO JUNG SIK	남	
의원	문영희 文瑛喜	44	MOON YOUNG HEE	여	9월23일 출발
사무국장	민창근 閔昌根	56	MIN CHANG GUEN	남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용상 金容商	54	KIM YOUNG SANG	남	
의정팀장	윤종철 尹鍾哲	53	YOUN JONG CHEOL	남	
직원	김영수 金榮壽	42	KIM YOUNG SOO	남	

③ 주요 접견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부주임	요 수 봉	
	부 주 임	양 명	
	”	유 수 용	광명방문자
	”	후 홍 안	
	비서장	담 군	
	부비서장	정 상 철	
	부비서장	장 철 립	
시 인대 민간교류 외교위	상위위원 주임위원(조선족)	김 유 권	광명방문자
“	부주임 위원	양 국 안	
시 인대 상위회	연구실 부주임	이 세 향	

☞ 기타 13명은 상무위원회 및 시정부와 해림시 중견급 간부와 직원입니다.

4 방문일정

일시	지역	교통	시간	방문일정	비고
9. 27(화) (1일차)	광명 인천 목단강	KE823	10:00 11:45 14:00 18:00 20:00	○인천공항 출발 ○목단강 공항 도착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이동 ○환영만찬(하와이 호텔)→장정천 주임 등 ○호텔투숙(하와이 호텔)	환영만찬
9.28(수) (2일차)	목단강	버스	07:30 10:00 12:00 14:00 17:00 20:30	○조식(하와이 호텔) ○회담(광명시의회⇔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중식 ○사회복지시설 방문 ○석식 ○호텔투숙(하와이 호텔)	호텔식 현지식 한식
9.29(목) (3일차)	목단강	버스	07:30 08:30 전일	○조식(하와이 호텔)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지 견학 ○중식 ○이도백하로 이동 ○석식 ○호텔투숙(금수학 호텔)	호텔식 현지식 한식

일 시	지 역	교 통	시 간	방 문 일 정	비 고
9.30(금) (4일차)	백두산	버 스	전일	○조식(금수학 호텔) ○사회복지시설 방문 ○중식 ○천문봉 견학(짚차로 하산) ○연길로 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석식 후 호텔투숙(연길대우 국제호텔)	호텔식 현지식 한 식
10.01(토) (5일차)	도문 목단강	버 스	전 일	○조식(연길대우국제호텔) ○용문교(조망) 견학 ○중식 ○용정중학교 방문 환담 ○두만강 및 중조 국경지대 견학 ○석식 ○목단강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호텔투숙(하와이 호텔)	호텔식 현지식 한 식
10.02(일) (6일차)	목단강 인 천 광 명	버 스	07:30 09:30 12:20 13:00	○조식(하와이 호텔) ○팔녀투강기념비 관광 ○목단강 출발 ○인천공항 도착	호텔식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 인민대표대회 권한 및 조직도

①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개요

목단강시 제1기 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개최하였으며 1965년 12월까지 총 6기에 걸쳐 20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1966년부터 1979년까지는 중단되었다가 1980년 11월에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를 거쳐 인민대표상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때부터 인민대표회의 상설기구로서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이며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이다. 시 인민대표대회는 시 관할구역인 각 현(시)·구인민대표대회에서 엄격히 법에 의하여 인민의 선거(2007. 1. 28)에 의해 탄생됐다.

현재의 인민대표대회는 인민대표가 344명으로 이중 노농군중대표가 53명, 민주당파 인민대표가 14명, 기타 소수민족대표가 49명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35명으로 시 인민대표회의 선거에서 선출하여 구성했으며 주임 1명, 부주임 6명 비서장 1명을 두고 있다.

②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의 권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가. 결 정 권

행정구역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을 심사·비준하며 행정구역내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위생, 환경과 자원보호, 민정, 민족 등 사업의 중대한 사항들을 토론·결정한다

나. 감 독 권

행정구역내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및 상무위원회 결의사항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심사하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변경, 철회할 수 있으며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선 거 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시 인민정부 시장, 부시장,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하고 상1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하며 각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을 선출한다.

③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가. 결 정 권

행정구역내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위생, 환경과 자원보호, 민정, 민족 등 사업의 중대한 사항들을 토론·결정하며 인민정부의 건의에 따라 행정구역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의 부분적 변경을 결정한다.

나. 감 독 권

행정구역내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결사항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며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리하며 하1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철회하고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임 면 권

인민정부 부시장의 개별적인 임면을 결정하며 시장,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사정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부직간부, 지도성원 중에서 대리인선을 결정하며 시장의 제의에 따라 인민정부의 비서장 재판장, 국장, 위원회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며 인민검찰원의 부검찰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을 임면하며 하1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면을 비준하고 본급 인민대표회의 폐회기간에 개별적인

부시장의 직무를 취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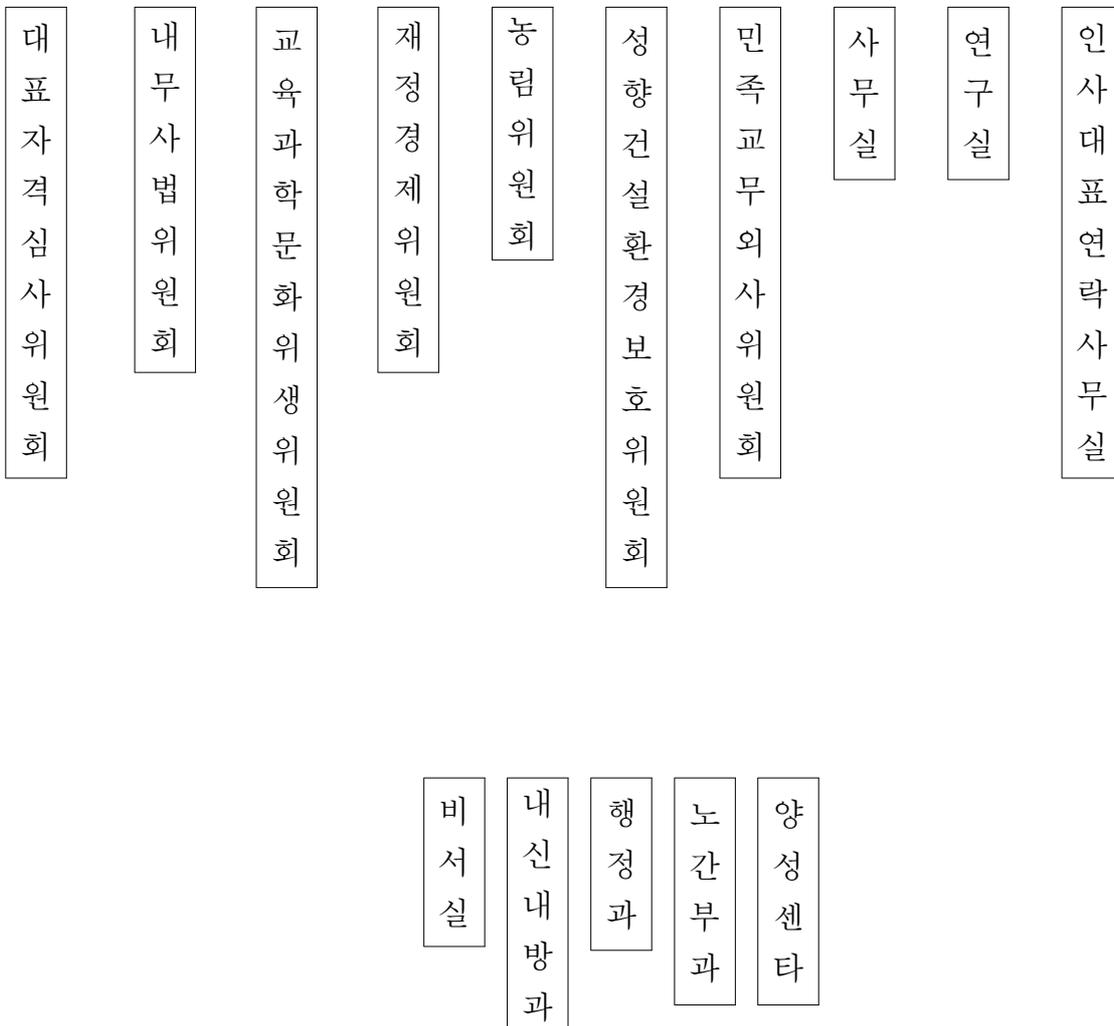
또한, 인민정부의 기타 구성인원과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장, 부재판장 심판위원회의, 인민검찰원의 직무를 취소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④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조직도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주임 : 1명, 부주임 : 6명, 비서장 1명 등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⑥ 목단강시 인대방문 회담내용

가. 인민대표대회 환영만찬

○ 일 시 : 2011.09.27(화)18:00

○ 장 소 : 하와이호텔 연회장

○ 참 석 : 20명(광명시의회12명, 인민대표대회8명)

※ 인민대표대회 주요참석자 : 유서용부주임, 담 권 비서장 등



○ 유서용부주임 환영사(요약)

-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 그동안 목단강시와 적극적인 교류에 감사드리며 문현수 부의장님과 이병주의원님 등 아시는 분들에 대하여 반가움을 표시
- 올해로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12년이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이번방문을 계기로 양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함.

- 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유서용 부주임 건배제의

나. 광명시의회와 인대 대표단과의 회담

- 일 시 : 2011.09.28(수)16:00 ~ 17:00
- 장 소 : 인민대표대회 사무실
- 참 석 : 21명(광명시의회12명, 인민대표대회9명)
- ※ 목단강시 인대 주요참석자 : 요수봉 상무부주임, 담권비서장 등



○ 양시 대표 인사말씀 및 회담내용

-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이준희 의장님과 문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목단강시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반갑습니다.
- 인사말에 앞서 우리 목단강시 인민대표 대회에서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주임이신 장춘찬님께서서는 공무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우리측 대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요수봉(야오쇼우펑)시인대 상위회 상무부주임을 소개합니다.
 - 정쌍철(정 슈양티에) 시민대 상위회 부비서실장
 - 양국안(양귀안) 시민대 민간교류의 교위 부주임 위원
 - 김유권(진요우 취엔) 시민대 상위위원 : 민간 교류의 교위 주임위원(조선족)
 - 백옥 통역입니다.
 - 그리고 저는 시인대 상위회 비서실장 탄권입니다.
- 요수봉 상무 부주임님의 환영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준희 의장님과 문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대표단 일행의 목단강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장춘찬 주임님을 대신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춘찬 주임님께서서는 흑룡강성 주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목단강시인대와 광명시의회는 12년간을 교류하여 그동안 우의가 돈독해졌으며 서로 왕래를 가졌습니다.
 -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목단강시를 소개 하겠습니다.
 - 목단강시는 중국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하고 면적은 4,690km²이며 인구는 280만명이고 10개의 현(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13만명이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그 외 9개의 소수민족

이 있습니다.

- 목단강시는(무단장시) 4개의 시할구 4개의시 쭈이편허, 님안시, 하이런시, 무링시 2개의 현 린커루현, 둥님현이 있습니다.
- 시내인구는 90만명이며 시의인민정부는 강남신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중국내에는 2가지의 특색이 있습니다.
 - 첫째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와 공유된 구간을 211km가되고 대무역으로 주로 도로, 철도, 항공기며, 도로와 철도는 직접 러시아와 통하며 항공료도 러시아와 연결되며 개방하는 도시며 흑룡강성의 51%가 36개 국가와 무역을 하며 흑룡강성 내 전체 무역중 많은 해는 83% 적은 해는 57% 무역을 하고 있으며
 - 전체적 수입 수출 도시는 목단강시가 주 부분을 차지합니다.
 - 둘째 관광입니다. 호수 경박호입니다. 용암원산호수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며 세계 제2위의 고산언제(堰堤)호수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 경박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못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는 산림입니다. 목단강 지역에는 302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있습니다. 화산 분출구가 많이 내려가 생긴 원시림 지하산림이 있습니다.

- 세 번째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해림에는 설향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찬 공기와 동해의 찬바람으로 많은 해에는 2m로 양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 그래서 유명해진 것은 사진작가이며, 지붕이 마치 버섯모양입니다.
- 20세기 50-60년대 중국에 훈련기지를 눈과 관계된 많은 스키선수를 배출하였으며, 촬영 좋아하는 사람, 일출, 일몰을 찍기 위해 수백명의 작가가 머물며 촬영합니다.
- 가장 많은 민족으로는 조선족이 많이 살며 흑룡강성에만 46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 목단강시에만도 13만명의 민족이 특색입니다.
- 조선민족은 우수민족이며 인재가 많습니다.
- 저도 교포입니다. 김유권 주임위원과 교포 교류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 1,300 여년전 발해 상경용천부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민족 발해에 관심이 많습니다.
- 관광자원을 다 못 보여드려 유감입니다만 많은 홍보를 요망합니다.
- 호랑이 공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매우 큰 공원입니다. 사진작가도 옵니다. 반달곰 사육장이 있고 아시아에서 제일 큼니다.

- 목단강시는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며 고도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 흑룡강성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농민이 제1류이고 도시수입도 다른 시 보다 앞질러 있습니다. 오전에 동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단강시 조선민족 소학교, 고등학교, 복지사업을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광명시의회가 합작 만들기를 했으면 합니다.
- 경제무역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체 교류가 필요합니다.
- 개발구를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정책이 필요합니다. 외자유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문화, 체육 부분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류를 원합니다.
-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사람들은 한족의 제주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단강시도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목단강시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민간이나 관광 회사가 홍보하는 것 보다 광명시의회가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큼니다. 홍보해 주십시오.
-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정책적 기업체 홍보가 또한 필요합니다.
- 간단하게 목단강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 의장)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장 이준희입니다.
- 열렬히 환영해 주신 목단강시 인민대표 대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취찬(장춘찬) 인민대표대회 주임님께 감사드리며, 요수
봉상위원회 상무부주임을 비롯한 탄권 비서실장님, 정쌍철 부
비서실장님, 김유권 민간교류외교위 주임위원님, 양주안 민간
교류외교위 부주임님과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 특히 목단강시와 광명시간의 인연을 맺어준 김유권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광명시 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신
고순희 의원님께서서 광명시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의 말씀이 있
겠습니다.

(고순희 운영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 고순희입니다.
- 광명시 기본현황 및 광명시의회 직제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광명시 총 면적은 38.5 평방 킬로미터이며, 인구수는 약 35만이
고, 서울 위성도시 및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지하철 7호
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국토를 종단하는 KTX 고속철도
광명역이 위치하고 있고 인천국제 공항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
이며, 대규모 기아자동차 공장과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돔
경륜장 이 위치해 있습니다.

- 광명시청 행정기구는 5국 3실 1단 24과 126팀과 1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의 동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광명시 공무원은 931명으로 2년전 보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수가 36명 증가하였습니다.
- 광명시의회 의원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확정 및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등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총 19명으로 의회사무국장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3명과 의정계, 의사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광명시 기본현황 및 광명시의회 직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 의장)

-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 광명시는 1999년 상호 우호협정을 맺은 오래된 친구로서 상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장천찬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주임님을 비롯한 부주님과 관계자 여러분!

광명시의회는 오늘 목단강시 인대 상무위원회와 회담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기업, 문화, 체육 청소년 등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길이 이어지면서 양 도시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국가인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유치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우리 방문단은 광명시의회 의원8명, 의회사무국 직원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목단강시에 머무르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보고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목단강시는 경박호를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천연자원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이며 관광중심의 문화도시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동포들이 13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매우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면적이 38.5평방 킬로미터이며, 인구 35만의 서울과 가장 인접한 도시로 경기도 중서부 중심도시로서 지하철7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국토를 종단하는 KTX 고속철도 광명역 위치하고 있고, 인천 국제공항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 기아자동차 공장과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돔 경륜장이 위치해있습니다.

현재 KTX 광명역 주변의 역세권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건설의 고동소리가 메아리치는 등 급격한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의를 증진시키고 양 도시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과 도약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문단을 열렬히 환영해 주신 장천찬 주임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시가 상호 우호적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손잡고 홍보하였으면 하며 많은 면에서 생각이 같습니다. 오늘의 회담이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 문화, 체육, 관광등 합작이 되기를 바라며 양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담내용

(문현수 부의장)

- 목단강시에서도 예술단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시도 농악단과 오케스트라가 있다
상호 민간교류 차원으로는 교류도 가능하다. 목단강시의 유명한 날이니 행사가 있을 때하면 더욱 좋다

(답변 요수봉)

- 좋은 아이디어다. 목단강시에서도 목단강시 민악단과 가무단이 많이 있다. 적극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다.

(이병주의원)

- 광명시에는 유망중소기업이 200개 정도 된다. 대한민국의 최고다. 벤처기업, 인터넷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등이 있다.
- 목단강시 특구개발과 관련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투자토록 해보자. 인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답변 요수봉)

- 그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다. 200개 회사가 모두 참여를 바란다.

(서정식 의원)

- 목단강시 조선족 소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녀왔다. 저소득층 어린이 3명에게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고 싶다.

(답변)

- 감사하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 지원을 적극 받아들인다.

(정용연 의원)

-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다. 목단강시에서도 눈이 많이 오니 목단강시의 눈썰매장과 스키장을 평창모델로 접목시키면 목단강시에서도 좋을 것이다. 2018년 평창을 찾아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

(답변)

- 감사하다. 목단강시도 눈이 많이 온다. 참 좋은 생각이다
- 조선족 학교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조선족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회담은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그 외의 대화는 만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찬장으로 이동 -

※통역 : 백옥(조선족)

주요방문지 및 견학내용

I. 목단강시

- 중국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 해 있다.
- 6개의 철도노선과 1백 66개의 도로노선이 연결된 교통 중심지로서 상업도 발달한 곳이다. 도시 자체에는 별로 관광할 것이 없지만 주변 외곽도시 중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경박호나 발해 유적지, 동경성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단강을 들러야 할 만큼 교통의 요지이며 경제, 무역, 관광도시이다.
동쪽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목단강시는 지역내에 211km의 국경선이 있으며 블라디보스톡까지 직선거리는 248km이다.
- 6개현과 4개구가 있고 지역 총면적은 4.01만 평방킬로미터(광명시의 1,038배), 총인구는 271만명(광명시의 8.5배) 정도이다.
이중 도시인구는 81만명(광명시의 2.5배)이고 지역내에 13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 대우제지, 삼신건재 등 36개의 한국기업이 있다.
- 9월의 평균기온은 14.7℃(최고기온 20.5℃, 최저기온 8.7℃)이고 10월의 평균기온은 6.5℃(최고기온 11.9℃, 최저기온 0.0℃) 임.

II. 목단강시 조선족 소학교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리준희의장님, 전체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체 사생을 대표해 이렇게 우리 목단강시 조선족소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목단강시 조선족소학교는 1934년 8월 29일에 건립 되었는바 78년의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흑룡강성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학생수가 제일 많은 민족소학교로서 동북삼성에서도 이름있는 조선민족소학교입니다. 현재 학교부지면적은 11,200평방메터이고 원교수청사면적은 5,000평방메터입니다. 정부의 대폭적인 지지로 인민폐 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새 교수청사를 짓는데 새로 완성될 교수청사는 그 면적이 5,700평방메터에 달합니다. 이미 2층까지 지은 상태인데 명년 여름이면 완공되어 새학기 9월이면 전체 사생이 새 교수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는 소학부와 유아원부가 있는데 교직원 51명에 소학생 600여명, 유아원생 200여명이 있습니다. 소학부에는 6개 학년에 총 14개 반급이 있으며 매 반급학생인수가 약 43명입니다. 유아원에는 소반, 중반, 대반 세개 층차의 반이 있습니다. 학교청사재 때문에 지금 소학생들은 목조중과 한족중학교 두곳에서 공부하고 유아원어린이들은 부근의 사립유아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국가의 요구와 학생들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위해 조선어과, 한어과, 영어과 등 12개 학과목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특장을 배양하기 위해 각종 특장반 이를테면 글짓기반, 축구반, 스케트반, 무용반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장끼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교육으로 말미암아 많은 한족학생, 한국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한족어린이가 80여명 있고 한어를 배우러 온 꼬마 한국류 학생들이 30여명에 달합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 학교는 국제류학생부신청을 하여

허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결손가정 자녀가 80%이상인 학교실제에 근거해 2008년 학교에서는 목단강시에서 유일한 우리 민족특색이 있는 홈페이지(www.msx2008.com)를 만들어 학부모들과의 교류도 심화시키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 민족학교를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학교는 일찍 《전국붉은넥타이꼬마갑급축구구락부학교》, 《흑룡강성빙설전통항목학교》로 자리매김하고 《흑룡강성민족교육선진집체》, 《흑룡강성빙설선진집체》, 《흑룡강성교육계통선진집체》, 《목단강시문명단위기준병》 등 수백차례의 집체영예를 따냄으로써 목단강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만큼 발전하고 성과를 거둔데는 정부의 지지와 민족간부, 그리고 타국에 계시지만 항상 민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목단강시조선족소학교의 전체 교직원들은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백의민족의 희망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단강시조선족소학교를 민족특색이 짙은 다원화학교로, 국제화학교로 건설하여 백의민족의 차세대교육의 요람으로 만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단강시조선족소학교 교장 박명국

2011년 9월 28일

Ⅲ. 목단강시 조선족 중학교

65년의 역사를 지닌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목단강시 조선족중학교는 1945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 흑룡강성내 조선족중학교 가운데서 건교시간이 가장 이르고 규모가 가장 큰 민족중학교이다.



우리 학교의 전신은 고려중학으로서 1946년 3월에 고려녀자중학과 합병하였고 그해 9월에는 목단강시중학(현재 목단강시 1중학)과 합병하여 연합중학으로 되었다. 1950년 2월에 목단강시 조선족중학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진성범위내에서 고중생을 모집하였다. 1956년에는 전성적으로 유일한 민족중점중학으로 확립되었다. 1962년 6월에 사범부를 부설하였었는데 1976년 목단강시조선족사범학교가 단독으로 일어서게 되자 사범부는 갈라져 나갔다. 1986년에는 흑룡강성교육청으로부터 성급중점중학으로 재명명 받았다. 1922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성중점중학 등급 검사험수에 통과되어 정치 급(현급)단위로 승급하였다. 2008년 12월에 흑룡강성 시범성고중으로 발탁하였다.

흑룡강성동남지구중점중학 친목리사학교로서의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는 반세기가 넘는 력사의 발전과정에서 흑룡강민족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위버릴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오륙십년대 대학입학률은 90%이상이였고 80년대에는 련속5년간 대학입시 성적이 전성조선족중학교 가운데서 첫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대학입학률이 85%에 달했다.

2001년도에는 진성 민족중학중 제일 처음으로 대학입시에서 본과점수 선에든 인수가 100명의 선을 넘는 기록을 돌파하였다. 그 뒤를 이어 련속 7년간 본과생 100명을 넘는 희소식을 받아 왔을뿐만 아니라 5년 5명 장원을 키워냈다. 즉 2000년 고중입시 목단강시 장원, 2002년 목단

강지구 대학입시 문과장원, 2003년 목단강지구역 대학입시 리과장원, 2004년 목단강지구역 대학입시 문과장원(3명의 장원은 모두 북경대학에录取되었음) 2007년에 목단강지구 대학입시 문과장원, 2011년에는 또 목단강지구 대학입시 문과장원이 나타났다. 이같이 우리 학교에서는 17,763명의 합격된 초,고중 졸업생과 580명의 사범졸업생을 배양하여 3,663명의 품행이 단정하고 학문이 뛰어난 학생들을 전국 각지의 대학과 중등전문학교에 보냈다. 그중 청화대학 6명, 복단대학 8명, 북경대학 10명, 중국인민대학 4명, 상해교통대학 6명, 중앙민족대학 76명, 동제대학 3명, 남개대학에 2명을 보냈다.

우리 학교의 고중졸업생들은 대학원과 사회의 환영을 많이 받고 있다. 성내외의 대학원으로부터 보내온 장학금축하편지와 졸업생들의 감사신은 전교 사생들을 크게 고무함으로써 진정 목조중교육개혁의 새 기원을 열어 놓았다.

학교부지면적은 3만 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2,570 평방미터이다. 1964년에 3,070 평방미터의 3층 교수청사를 새로 짓고 1989년에 1900 평방미터의 4층 실험건물을 증축하였으며 1992년에 200 평방미터의 숙사건물을 증축하고 1998년에는 2500 평방미터의 4층 고중부 교수청사를 새로 짓고 2003년에는 3100 평방미터의 예술, 체육관과 종합건물을 새로 지었다. 37만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다기능 시청각교실은 성내에서도 보기드문 선진적인 시청각설비가 구비된 현대화한 교실이다. 우리 학교에는 어음실 한칸, 마이컴 교실 두칸에 전자화계단식교실, 물리 화학 생물 실험실, 음악실, 악기실, 무용실, 미술실, 열람실, 도서실, 통용 기술교실, 종합실천활동교실, 학교력사 전람실, 회의실, 교사활동실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826명 학생이 있는데 그중 고중학생이 580명이다. 모두 20개 학급이 있는데 그중 고급중학이 11개 반급, 초급중학이 9개 반급으로 나뉘어 있다. 교직인원은 모두 120명인데 그중 연구생 학력 1명, 연구생과 정반결업 11명, 고중교사 본과학력은 100퍼센트이다. 고급교사 44명, 일급교사 52명이 있다. 우리학교에는 국가급 우수교사 1명, 특급교사 1

명, 성 선진사업자 3명, 성 로력모범 1명, 성 홍수방지 선진개인 1명, 성 우수교사 10명, 시 로력모범 6명, 시 우수교사 68명, 시급 “10명최우수교사” 2명, 시“우수 교사기준병”4명, 시 선진사업자 26명이 있다.

학교에는 30세이하의 교원이 30명 있는데 교직공의 24%를 차지한다. 교원들의 평균 연령은 37세이다. 학교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청년교원들의 잠재력을 발굴하는데 중시를 돌리는 한편 그들의 자질제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몇 년래 학교에서 지출한 교사양성자금은 12만원에 달한다.

목전 우리 학교에는 성급 교수능수 3명, 성급 골간교사 3명, 시급 골간교사 8명, 시 학과리더 7명, 시 교수능수와 신수 48명, 학교급 골간교사 21명이 있는데다가 6명 교사는 파격적으로 고급교사의 직함을 가졌다.

오직 교원들의 총체적 자질을 제고해야만 학교의 교수질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에서는 두주일에 한차례씩 교연조, 학년조 활동, 업무학습, 정치학습을 진행한다. 그리고 “골간교사 시범과”, “청년교사 회보과”, “일급교사 공개과”, “우수과”, “교학능수”, “신수” 평선활동을 경상적으로 전개하며 정기적으로 청년교사들의 기본기능시험, 교수시험, 수업설명, 강연, 서법시험, 우수교안 전람 등 활동을 벌임으로써 노력으로 여러차례나 성, 시 교수경색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2001년 9월 국가교육부사범부에서는 우리 학교를 “중대한 항목 중점 과학연구 기지”로 확정후로 4개항목의 국가, 성 교육과학연구과제는 이미 아귀를 지었다. 과학연구실건설은 시 구역내에서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교육과학연구관리는 전시범위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2000년 우리 학교는 중앙교육과학연구소 외국어교수 실험 선진집체로 당선되었고 2004년 과제규획연구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특수가정 학생품덕경향 연구”는 국가급 특등상을 수여받았다. 지금은 2008년 성, 시 중점과학연구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몇년래 국가급, 성급, 시급에 발표된 우리 학교 교원들의 학술논문은 1000여편에 달한다.

오직 특색이 있는 학교를 창의적으로 꾸려야만 경쟁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존과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 최근 몇 년래 우리는 학교의 실제정황에 따라 덕육사업, 다섯 어종의 언어교수(조선어, 중문, 한어, 영어, 일어)교본과정, 레의교육, 예체교육 등 학교를 꾸림에 있어서의 자기만의 특색을 이미 갖추었다.

1988년 교장책임제를 실시한 이래 교장이 전면공작을 틀어쥐는 전제하에서 학교 당총지서기, 교장을 핵심으로 한 학교공작 지휘체계를 세웠고 덕육 부교장을 위수로 한 덕육사업지휘체계를 세웠으며 교학 부교장을 위수로한 교학공작관리체계를 세웠고 행정 부교장을 위수로한 총무후근공작 관리체계를 세웠을뿐만아니라 교연조와 학년조가 병존하는 관리제도를 건립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주제반회, 단회, 성인선서, “목조중 10명 최우수 교사”, “목조중 10명 최우수 학생”, “봄비공정”활동을 전개하며 또 “덕육세트 음식”, 변론대회, 외국어 소품경색 등 활동을 경상적으로 개최하며 국가급, 성급, 시급의 각종 시합에도 적극 참가한다. 해마다 춘기 룡상운동회, 추기 구류운동회, 겨울철 빙상운동회와 교내예체절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무용, 축구, 배구, 빙상운동을 특색으로 하는 “일류항목”을 만들어 해마다 있는 시 전통항목시합에서 룡속 일등의 보좌를 차지했다.

학교에서는 교정문화건설에 높은 중시를 돌려 부단히 교정문화의 내함을 풍부히 하여 인재를 키우는 환경을 최적화하고 교정문화의 은형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학교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회랑문화건설을 가장하고 학교경영조건을 집중 개선함으로써 사생을 위하여 우아하고 아름다운 교정환경을 창설하였다.

학교를 더 잘 경영하고 가장들로 하여금 학교의 일상관리에 참여할뿐만아니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 가장, 사회로 조성된 공동체 감독지도위원회와 가장위원회를 성립하였다. 사회지역 감독지도위원회는 시조선족 여러사업단의 8명 조선족 간부들로 조성되었으며 가장위원회는 학교, 학년조, 반급위원회 회원도합 139명 가장들로 조성되었다.

학생들의 자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과외취미 동아리활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현저하다. 근 몇 년간 국가, 성, 시급의 지

력경기, 세가지 어종의 강연 시합, 글짓기시합, 각학과목의 올림픽시합, 서법경기, 바둑시합, 문예시합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내외 형제학교들과의 교류 및 합작의 범위를 부단히 넓혀 가고 있다.

2001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조선 등 나라의 대학과 우호관계를 맺고 호상 대표를 파견하여 고찰방문을 했다. 1990년 전국 할빈에서 있는 한국 MBC 문화방송국에서 조직한 전성 조선족학생 지력경기에서 고중조 1등을 따냄으로써 2명학생과 2명 지도교원은 요청을 받아 한국 고찰방문을 다녀왔다. 그뒤를 이어 또 5명의 고중학생이 일본에 가서 단기유학을 하고 돌아왔다.

정성껏 노력하면 수확이 있기 마련이라고 우리 학교는 일찍 1960년 전국문화교육 분야의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에서 영광스럽게 “전국교육선진 단위”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중점중학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선후하여 “전국 체육단련표준 실시 선진단위”로, “성 문명단위”로, “성 덕육 공작선진집체”, “성 민족교육선진단위”, “성 서류보관공작기준병단위”, “성 고중 과정개혁 선진학교”, “목단강시 문명단위기준병”, “시 교육 공작선진 단위기준병”, “시 과학연구(보급)선진단위표병”등 영예칭호를 받았다.

6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우리는 줄곧 전성 민족교육사업의 실험, 시범, 복사역할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고 새로운 기점에 발붙이고 새로운 발전을 탐구하여 왔다. 오늘 우리는 또 전면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자질교육을 추진하기에 진력하고 있으며 학교경영모식의 개혁을 부단히 심화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가장하고 과학연구로 학교를 변형시키는 길을 걷고 있다. 인성교육사업을 강화하면서 조준성과 실효성을 증강하고 사생의 사상자질을 제고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령역개혁을 심화하고 교수질을 제고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교원대오건설을 가장하고 교원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며 내부동력을 움직이고 외부동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5년래 우리는 시정부의 자원투자를 쟁취하기에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을 특별히 중시하는 조선민족의 전통을 충분히 발휘하며 교원이

자금을 기부하고 국내외 민족 단체의 보조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도경을 통하여 1900여만원의 자금을 모아 학교력사의 최고치를 따냄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원배치로 하여금 한층 높은 단계에 오르게 하였다.

2008년 5월 21일 우리 학교에서 열린 전성 민족고중 과정개혁 현장회의는 우리 학교의 발전사상 기념비적 의의를 가진 회의이다. 회의는 성 교육청 맹청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성, 시의 령도 동지들과 전성 민족고중에 우리 학교 60여년간의 학교경영과정에서 쌓아온 풍부한 교정문화의 내함과 전교사생의 찬란한 풍채를 펼쳐보았다.

2008년 10월 21일 성 인대령도분들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여 “흑룡강성 민족교육 조례”를 관철락실한 정황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충분한 공정을 주시였다.

2008년 12월 26일 성 교육청 전문가들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여 성급 제4차 시범고중 협수를 하셨다. 전문가들께서는 “목단강시조선족중학은 63년간의 학교경영력사에서 부단히 탐색하고 창신을 개척함으로써 이미 선명한 민족특색을 갖춘 고중으로 되었다.”고 한결같이 인정해 주셨다.

새 세기에 진입한 오늘 목조중은 풍부한 역사적경험루적을 기반으로 이름있는 학교를 창설하는 로정에 발을 내디뎠다. 우리는 전성민족고중 과정개혁현장회의를 계기로 성 시범고중전문가 소조의 연구평가와 성급문명단위표병창건, 서류협수를 순리롭게 통과하였다. 우리는 선진적인 학교경영리념과 경영사상의 지도하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력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이며 힘을 모아 목조중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목단강시조선중학교

2011년 9월 28일

IV. 팔녀투강 기념비

- 빈강공원의 한가운데는 목단강시를 내려다보며 팔녀투강 기념비가 서있다.
1938년 10월 일본군과 탄약이 다 떨어질 때 까지 싸운 끝에 전원이 포로로 잡히는 것을 거부하고 목단강에 몸을 던져 산화한 항일 게릴라 여성대원 8인을 기려 세워진 기념비이다.
- 우리 조선족 출신인 이봉선(당시16세), 안순복(당시23세) 열사가 함께 하고 있어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V. 목단강시 강변 노년 휴양센터

- 목단강시 강변 노년 휴양센터는 목단강시 서안구 강변대가 55호에 위치하며, 목단강시 민정국 소속 기관이다. 휴양센터 건축면적은 12,000㎡이고, 2010년 10월말에 개관 이 휴양센터는 목단강시 전 구역에서 제일 큰 국립양로 시설이며 센터 안에 노인들에게 생활간호, 의료보건, 강복오락,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VI. 목단강시 아동 복리원

○ 목단강시 아동복리원은 198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목단강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아, 장애 아동에게 교육, 강복,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복리원은 제원 고아, 장애아동 186명이 있고 25년 동안 약1000명의 고아, 장애아동을 도와주었다.



VII. 천지(天池)조망

- 백두산 풍경 중 최고로 뽑히는 천지는 화산의 분화구에 생성된 것으로 해발 2,200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데에서 '천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VIII. 용정중학교

- 백두산에서 관광을 마치고 용정시 입구에 도착하면 일송정과 해란강이 있다. 이 곳을 본 후 용정시내에 위치해 있는 대성중학교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과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느낄 수 있다.



- 용문가 민성로(현 용정중학교)는 대성유교(儒敎乳敎)에서 설립 했으며
연길도 윤도빈의 지원 아래 모금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했다고 한다.
- 1921년 10월 5일에 개교했으며 수업과목은 사서오경(四書五經) 위주로
수업을 하였고 학생은 대부분 조선족이었다.
그 후 1928년에 새로 보수하여 목조구조를 토석벽돌 구조로 보수했다.
- 용정중학교(구 대성중학교)에서는 약 5백여명의 학생을 배출하였으며 대부
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계, 상업
계에서 명망이 높다고 한다.

IX. 용 정 시

- 용정시는 길림성 동남부인 장백산의 동쪽기슭에 자지잡고 있으며 동
남쪽은 조선과 마주하고 있다.
동북쪽은 연길시·도문시, 서남쪽은 화룡시, 서북쪽은 안도현과 인접
해 있으며 상공업발전 도시이다.
- 총면적은 2,590km² 이고 인구는 약 28만명이며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
하고 있다. 조선족 외에 한족, 회족, 만족, 몽골족 등 12개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용정시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연길현인민정부가 수립되어 송강성에 귀속했다가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귀속됐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3·13 만세운동의 현장(용정소학교)을 비롯하여 1880년경 한국인이 우물을 처음 발견했다는 용정 기원(起源) 우물이 있다

○용정은 삼림 및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동·은·납·아연 등이 채굴되며 공업으로는 기계·화학·제지·피혁 등이 많이 생산된다.

두만강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江)이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며 주변의 농경지에선 쌀·콩·옥수수·사과·배 등의 농산물이 생산된다.

○교육기관은 3개의 대학원과 150여개의 소·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문화유적으로는 비암산의 일송정(一松亭), 3·13 반일의사의 묘소, 시인 윤동주 시인의 묘소 등이 있다.

X. 도 문 시

○도문시는 연길시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남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하고 북으로는 연변과 흑룡강성이 있어 군사 요충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이다.



- 두만강 중류에 위치해 있는 도문시의 총면적은 1,164km² 이고 인구는 약 15만명 정도이며 조선족이 약 70% 거주하고 있다.
연변에서 유일하게 두만강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옛날 이름은 회막동, 하전자, 애호전자라고도 불렀다 한다.
- 현재 연변 각지역과 장춘·심양·북경·목단강 등으로 통하는 열차는 거의 모두 도문역이 시발역이고 두만강 연안에서 육로와 철도로 무역을 하는 제일 큰 해관(세관)이 여기에 있다.
- 도문에는 북한을 관광토록 세관 옥상에 전망대 시설을 해 놓았으며 두만강을 통해 함경북도의 남양시를 볼 수 있다.
- 중국국경과 북한국경은 도문강 대교로 이어져 있으며 중국에서 대교 중간부근까지는 흑색으로 북한에서 대교 중간까지는 흰색으로 도색을 하여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 현재 두만강은 공해업체의 폐수 방류와 주민들이 마구 버린 각종 쓰레기로 오염이 심하다고 한다.

XI. 연변 자치주

- 중국속의 작은 한국 연변조선자치주이다.
-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여 러시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약 4만 3천km², 인구는 220만 정도이고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조선족이 약 40%를 거주하고 있다.
- 조선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이곳을 개척하였고 이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이후 1952년에 자치구가 설립되어 1955년에 자치주로 승격됐다.
연길·도문·돈화·화룡·용정·훈춘의 6개시와 왕칭·안도 등 2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도문강·송화강·목단강·소분강 등이 있고 도문강 유역에는 ‘동북아 금산각주’라 불리는 국제개발지, 훈춘 경제개발지가 있다.
- 조선말기 우리민족이 이주하면서부터 연변은 한반도 역사와 같이 하면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써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

으며 그 때문에 청산리항일전승지·봉오동항일전승지·일송정 등 유적지가 많다.

XII. 연길시

- 한국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연길(延吉)은 2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이지만 본격적으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백여년전 부터이다.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주도(州都)이며 중국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로 백두산과 가까워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 주민들의 옷차림, 주택, 거리를 둘러봐도 전혀 낯설지 않아 우리나라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자치주 스스로 그 민족 나름대로의 지역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따라 연변자치주내의 정부기관이나 신문광고 등에 조선족 자체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 그 때문에 연변의 거의 모든 옥외광고물이 한글로 되어 있고 한글을 공용어로 쓰고 있다.
- 연길은 중온대 반습윤 기후에 속해 여름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이 길고 추우며 뚜렷한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5.7도, 최저 -32도 까지 강하하기도 한다.
연길시의 총면적은 390km², 인구수는 26만명 정도이며 주변 농업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 1902년 연길청(延吉廳)이 설치되고 1909년 부(府)가 되었으며 1913년 중화민국 수립 후 현(懸)이 되었다. 1909년 간도협약 이후에 교역주로서 개방되어 많은 한국인 이민이 이주하여 연길시의 주변지역을 개척했다. 주변 지역에는 석탄, 금 등의 광산이 있어 광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한국어 방송국과 의과대학·연변대학이 있다.

□ 맺음말

- 지난 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시의회와 우호교류를 맺은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공식방문을 통하여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사회복지시설, 조선족학교 등을 방문하였다.
- 이번 목단강시 방문은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경제, 문화예술, 의료, 체육, 청소년 등 폭넓은 교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이 교류를 시작한지 12년을 맞았다.
- 향후 광명시와 목단강시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의를 증진시키고 양시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한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 또한 목단강시 조선족학교 학생들이 우리시 초·중·고를 우호 방문 및 양시의 예술단의 방문 등으로 앞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활발한 교류도 예상되며 향후 양교 학생들의 방학기간중 홈스테이 등의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방문을 계기로 광명시 의회와 목단강시 인대가 단순한 교류가 아닌 경제, 문화예술, 청소년, 체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를 초청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진행과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양 도시간 우호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될 것을 기대한다.